소년단

1956.2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민주 청년 동맹이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건설 시기와 특히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전쟁 승리를 보장함에 특출한 공훈을 세웠으며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여 창건 10주년을 맞는 민주 청년 동맹에 국기 훈장 제1급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내각에서도 지난 10년간의 빛나는 업적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 반부의 사회주의 기초를 닦기위한 투쟁에로 더욱 고무 격려할 목적으로 내각 결정 제7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의하면 미제와 그의 압잡이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영용하게 싸운 청년 영웅 용사들의 빛나는 공훈을 영원히 기념하며 자라나는 후진들에게 애국주의와 영웅주의 정신을 배양하기 위하여 리 수복 영웅의 모교인 평남 순천 고중을 리 수복 고중으로, 조 군실 영웅의 모교인 원산 1고중을 조 군실 고중으로, 안 성국 영웅이 운전하던 기관차를 안 성국 호로 이름을 고치며, 박 원진 영웅이 난 평북 구성군 길상리를 원진리로 할 것을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 제의하였습니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1월 20일 평북 구성군 길상리를 구성군 원진리로 할데 대하여 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농업, 건설 등 경제 건설 각 부문에서 국가 사업을 모범적으로 한 민청 단체와 열성 맹원들에게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해마다 민청 창립 기념일에 《민청 창립 10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남반부 청년 학생들과 재일 조선 청년 학생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와 학습할 것을 희망한다면 그들의 희망에 따라 국비로 교육을 시키며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 피복, 신발, 학용품의 무상 공급 외에 공화국 에 들어 오는 즉시로 매 한 사람에게 2만원씩의 생활준비금을 주고 또 매달 대학생들에겐 1500원, 전문 고중 학생들에겐 1천원씩《민청 창립 10주년 장학금》을 주기로 되였습니다.

끝으로 이 결정에는 민청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평양시에 자연 및 기술 과학 연구실,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전람회관을 비롯하여 각종 예술 써클 및 오락 시설이 갖추어진 청년 회관을 올해부터 건설하며 래년부터 평양시에 아동 궁전을, 개성시에 아동 회관을 각각 건설에 착수하기로 되였습니다.

김일성원수의 어린시절

한 설야 작 《만경대》에서

어린 원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에게서 일하는 것이 좋은 일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주장 들 일을 많이 해서 자주 일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울타리 안팎 거두기에 손에서 일 놓을 날이 없어 원수는 날마다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지 없는 원수의 집은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주에게 뜯기고, 이름도 모를 가렴잡세에 숨 돌릴 날 없이 쪼들렸습니다.

이런 중에서 할아버지와 삼촌과 삼촌 아주머니가 손톱 발톱이 젖혀지도록 부지런히 일해서 겨우겨우 살아 갔습니다.

《제 뼈다귀가 공신이다》.

할아버지는 이런 알아 듣기 힘든 말을 하면서 일했으나 어린 원수는 그 말에 무슨 리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해춘하기 전부터 《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고 말하였고, 돌맹이도 자란다는 장마철이 올 때면 《하지를 지나면 발을 물교에 담그고 자야 한다》고 하였고, 어느새 오는지 모르게 온다는 건들 바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가을판에는 죽은 지어미도 생각난단다》 하였으며, 앞집 지붕우 고지박 덩굴이 시들고 거기 서리 앉은 것이 내다보이면 벌써 눈오는 시절을 생각하고 《겨울밤이 길긴 하지만 내 새끼, 노곤에는 안돼》 하여 사시장철 언제나 바쁘게 서둘 것과 부지런히 일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터 그말대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호박 덩굴, 오이

덩굴,그리고 고추, 가지 밭들을 비단옷이나 비다듬듯이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뻗어오르는 것을 넌지시 바라보며《혀를 빼물고 자라는구나》하고 기뻐하였습니다.참말 이집 모종들은 남의 것보다 언제나 목이 늘씬하고 잎이 싱싱하고 유들유들했습니다.

원수도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신기한 듯이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혀를 빼물고 자란다》고 하는 말이 우수워서《할아버지, 혀가 어데 있나요?》하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있구 말구,네가 몰라서 그렇지》하고 할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이른봄에 할아버지는 뜰앞 복숭아 나무 밑에 강아지 죽은 것을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거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며 그것을 가만이 들여다보고 있는 손주에게 《이것도 먹

어야 자라. 사람만 먹는 줄 아니. 이것도 입이있단 말이다》하고 또 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 뒤에 복숭아 나무에는 보암직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 열매가 삐죽한 주둥이들을 내민 품이 무척 커질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직 그 열매 속에는 하얀 물씨가 들어있었지만 살은 벌써 하고이찮게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 원수가 그걸 한 둘 따가지고 야금야금 먹고 있으려니까 할아버지가 《야, 증손아. 그거 뭐가?》하고 물었습니다. 《복숭아야요》하고 손주가 대답하니까 할아버지는 《복숭아? 어디 보자》하고 가져다 보다가 손가락질하며《이것 봐라,이게 혀가 아니냐, 삐죽하게 나오지 않았니》하고 삐죽한 복숭아 부부리를 가리키며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참말 복숭아 주둥이가 기다랗게 내민 것이 아닌게 아니라 긴 혀끝 같았습니다.

《이게 무척 자라자는 말이다. 이게 혀란 말이다. 네 말이 혀가 없다고 했지, 이게 감추어질때까지 자라면 이놈이 다 먹은거다. 그때는 배가 불러서 둥그렇고 내 주먹 보다 더 크게 돼. 그런걸 벌써 따 먹으면 쓰겠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원수는 따먹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와서 부러운 듯이 복숭아 나무를 쳐다 보며 침을 삼켜도 원수는 익어서 다 크기 전에는 따먹으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다가 원수는 복숭아가 다 큰 담에 몇개 따가지고 할아버지한데 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이거 다 자란 거지요?》.

《응 봐라. 얼마나 크냐, 인제

배가 부르니까 혀가 배'속에 들어가 벼렸구나, 됐다》.

《할아버지 잡수셔요》.

원수는 봄에 할아버지가 복숭아 나무에 거름 주던 때의 일을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걸궈서 이렇게 됐으니 응당 할아버지가 먼저 잡수어야 한다고 원수는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담에 따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며 원수는 동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때 따 먹자구 했지? 그럼 손해야, 지금 몇배나 컸나 봐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었어. 할아버진 참 용해, 할아버진 못 만드는거 없어》. 원수는 이때부터 근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또 근로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원수는 할아버지를 남달리 존경했습니다.

원수는 할아버지가 삼아 주는 짚신을 그대로 신지 않고 장난하다가도 소발자국에 괸 물 같은데 뒤축을 축여서 신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생하는걸 생각할 때, 그대로 쉬 결단 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은 근로를 사랑하며 또 물건을 아끼는 마음으로 자랐습니다.

평양시 소년단 축하문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창립 10주년 기념 평양시 보고 대회에서

소녀1, 우리들이 존경하며 따르는 여러 민청 오빠 언니들!

소녀2,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께서 친히 조직하여 주신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창립 열돐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 민청 형님 누나들에게 평양시 전체 소년단원의 이름으로—

일동, 열렬한 축하와 소년단 인사를 드립니다.

소녀2, 오늘 우리 소년단원들은 민청 오빠 언니들의 열돐 맞이 명절날을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커다란 기쁨과 자랑으로 맞이합니다.

소녀2, 오늘 우리 소년단원들은 로동당원 아저씨들과 민청원 형님 누나들의 친절한 지도를 받으면서 이처럼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소녀1, 오늘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민청 창립 열돐을 맞이하면서—

소녀1, 여러 형님 누나들에게는 민청을 조직해 주셨고—

소녀2, 우리 소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소년단을 조직해 주셨고—

소녀2, 우리 어린이들에게 항상 훌륭하고 귀중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소녀1, 우리 어린이들의 태양이시며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일동, 김 일성 원수 만세!

소녀2, 존경하는 민청 오빠, 언니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온 10년 간의 빛나는 자취속에는 가지가지의 훌륭하고도 슬기로운 이야기들로 꽃피여 있습니다.

소녀2, 그 속에서도 지난 날엔 소년단원이였으며 오늘엔 훌륭한 민청원이 되였고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출한 영웅 형님 누나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한없는 자랑과 기쁨으로 들끓게 하여 줍니다.

소녀1, 우리는 자랑합니다. 그 전날의 소년단원이였던 김 기우 2중 영웅 형님을—

소녀2, 미국놈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은 리 수복 영웅 형님을—

소녀1, 민청호 중기 사수로서 미국놈들에게 무리 죽음을 준 원산 고중 조 군실 영웅을—

소녀1, 박 원진, 리 정수 영웅 오빠들을—

소녀1, 우리는 자랑합니다.

일동, 우리의 영웅들을—

소녀2, 우리는 우리 영웅들의 모범을 따르렵니다.

일동, 나라를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으로!

소녀1, 사랑하는 민청 형님 누나들! 형님 누나들은 우리 소년들을 형님, 누나들 처럼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민청원으로 자래워 주기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쳐 노력하고 계십니다.

소녀1, 오늘 우리들은 민청 오빠 언니들의 친절하고도 사랑에 찬 지도를 받으면서 훌륭한 민청원이 될 그날을 위해 열심히 배우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녀1, 나는 올해 인민반 3학년 학생이 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훌륭한 교실에서 재미있는 여러가지 실험도 하며 하고 싶은 일은 언제 어느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과후가 되면 그날 숙제를 마치고는 아동 극장으로, 도서관으로, 아동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소녀2, 우리 분단에서는 언제나 김 일성 수상님의 슬기로운 어린 시절과 빛나는 혁명 활동을 연구하며 배우는 여러가지 모임들이 조직되여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녀2, 우리는 우리 나라의 인민 영웅들인 리 순신 장군, 강 감찬 장군, 을지 문덕 장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우리 나라의 명장들과 그리고 애국적 학자 박 연암, 정 다산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소녀1, 우리들은 이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동, 우리는 행복합니다.

소녀2, 존경하는 여러 민청 오빠 언니들!

소녀2,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 커다란 행복을 생각하면 할수록 미제국주의 놈들과 리승만 역도놈들 때문에 헐 벗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불상한 남반부 어린이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녀1, 오늘도 춥고 추운 칼바람이 불어 치는데 다 해진 여름옷에 깡통을 들고 추위와 주림에 떨며 거리와 골목으로 헤매이는 남반부 어린이들—

소녀1,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따뜻한 집마저 다 잃어 버리고 갈곳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이들에겐 얼음'장도 추위에 빠개지는 무서운 겨울 밤의 추위가 덤벼들고—

소녀2, 초롱'불도 꺼진지 이슥할제 눈보라 속에 휩싸인 다 허물어져 가는 움막 속에는 젖마른 엄마품을 애타게 쥐여 뜯으며 울고 있는 목갈긴 아기의 가냘픈 울음 소리—

소녀1, 그러나 우리들은 이 불상한 남반부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녀2, 어떤 놈들이 이것을 막고 있단 말입니까!

소녀1, 우리는 압니다. 똑똑히 압니다. 그놈들은 바로—

일동, 미제국주의 놈들이다! 리승만 역도 놈들이다! 미국놈들을 조선에서 몰아내자! 리승만 역도들을 타도하자!

소녀2, 김 일성 수상님이 가리키시는 길에서 하루 속히 평화스럽게 우리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 주십시요.

소녀2, 우리들도 맹세합니다. 우리의 더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불상한 남반부 어린이들과 하루 속히 손목을 마주 잡기 위하여 민청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라 더 훌륭히 공부하며 더 튼튼히 몸을 다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소녀2, 우리들은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평화스럽게 통일시키기 위해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넘쳐 완수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을 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녀2, 이 감격스럽고도 행복에 찬 민청 창립 열돐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민청 오빠 언니들의 모든 사업에서 더욱 큰 성과를 올릴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동, 우리 어린이들의 태양이시며 아버지이신 김 일성 수상님 만세!

공화국영웅

김 군 옥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이 일어난지 며칠 안되는 어느 날이였습니다.

우리 해군 함대 제2 어뢰정대는 상부로부터 주문진 앞 바다에 있는 적 함선을 정찰하고 그를 어뢰 공격으로 물리치라는 전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스러운 전투 명령은 바로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께서 주신 명령이며 조국과 인민이 우리에게 준 명령이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명령을 끝까지 그리고 빛나게 수행할 것을 당과 수령에게 맹세하였습니다.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이시여! 우리들은 당신의 충직한 전사들이며 당의 영예로운 아들들이며 민주 청년 동맹의 맹원들입니다.

우리들은 리 순신 장군과 우리의 용감한 선조들이 남해 바다에서 수백배의 적과 싸워 이긴 것처럼 반드시 바다의 미제 강도배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바다를 끝까지 지켜 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당과 수령에게 엄숙한 맹세를 다지는 우리 어뢰정대원들의 눈들에선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의 불꽃들이 튕겨났습니다.

드디여 7월 2일 밤 열두시 우리의 어뢰정대는 푸른 파도를

헤치며 기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새고 먼동이 터올 때까지도 우리들은 적함을 찾아 낼 수 없었습니다。

벌써 새벽 4시 30분이 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망원경으로 앞 바다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던 감시병으로부터 《적함 발견!》이라고 힘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로 우리 어뢰정대가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앞 바다에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맨 앞장에는 섬 같이 큰 두척의 순양함이 섰고 그 뒤에는 구축함 1척이 한줄로 늘어서서 우리 해안 마을에 함포 사격을 하기 위하여 륙지를 향해 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전투 준비!》.

나는 곧 우리 4척의 어뢰정대원들에게 구령을 내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나는 어뢰 공격을 곧 시작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투 과업은 밤에 기습하기로 되여 있었고 날이 밝은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불리하게 하여 주었기 때문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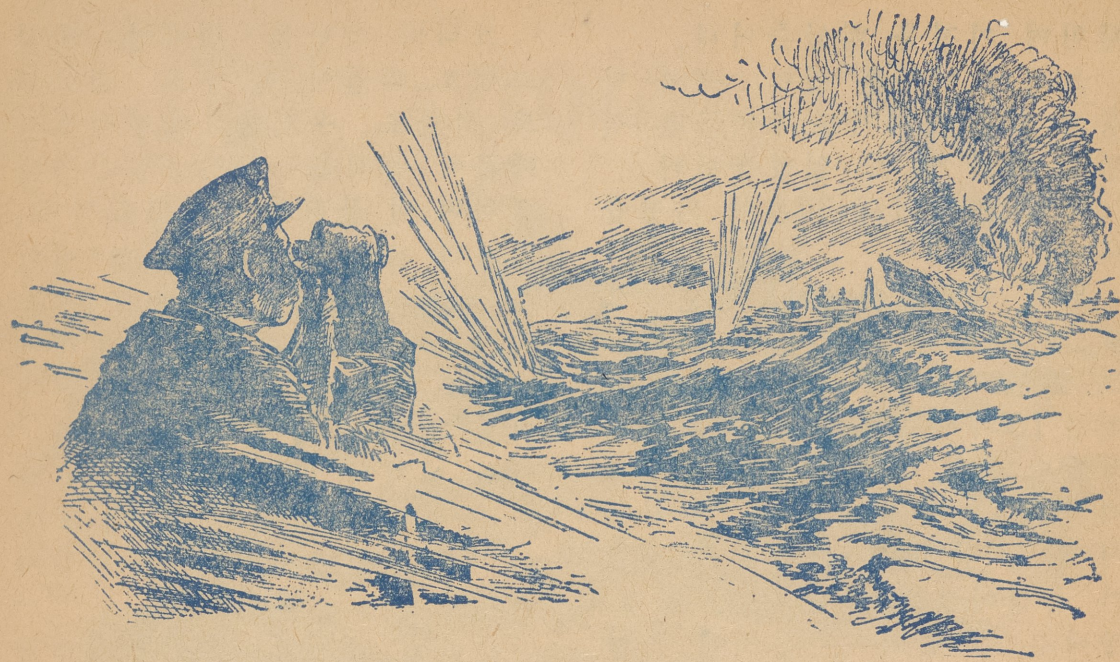
4척의 작은 어뢰정으로 몇 백배나 더 무장한 적의 대 함선과 대낮에 싸워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며 아직 어느 나라의 해군 력사에도 이러한 례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적함을 찾아낸 이상 그대로 되돌아 설 수도 없었고 또 적들도 우리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였습니다.

벌써 적함으로 부터는 비'발치듯 포탄이 날아와 물기둥을 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설 수는 없다.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들은 당과 수령이 키워낸 굴할 줄 모르는 아들들이며 민청의 맹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결심한 나는 곧 《공격!》 구령을 내렸습니다.

작은 4척의 배는 섬과 같이 큰 세척의 적함을 향하여 맞받아 나가면서 적함 800메터 앞에서 내가 탄 21호 정이 첫 어뢰를 발사하였습니다. 바로 첫 어뢰는 적 순양함의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어뢰에 맞은 적함에서는 불'길이 솟아 올랐습니다. 그러자 적함의 모든 포문들은 미칠듯이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바다는 마치 안개에 싸인듯 하얀 물거품으로 휩싸였습니다. 나는 곧 21호 정을 지휘하면서 적 순양함과 구축함 사이를 빠져 나가며 고사 기관총으로 적함 갑판 우를 사격하였습니다.

이것은 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적 구축함의 화력은 21호 정에 쏠리였습니다. 이 순간 공화국 영웅 리 완근 정장이 지휘하는 22호정과 23호

정이 또다시 불'길에 싸인 적 순양함을 향하여 어뢰를 발사하였습니다.

또다시 명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24호정이 뒤를 이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24호정은 적탄에 맞아 기름 땅크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곧 그들에게 배에서 내리라고 구령을 보냈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계속 용감하게 적함을 공격하다가 끝내 영예로운 전사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용감한 투쟁은 살아 남은 모든 우리 어뢰정대원들의 힘을 더욱 북돋게 하였습니다.

세발의 어뢰에 맞은 적 순양함은 수천명의 졸병들을 실은채 바다 속으로 까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약이 오를대로 오른 나머지 적함들은 바다를 뒤 엎을 듯 포탄을 퍼 부으며 우리 어뢰정들에 아가리를 벌리고 대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세 정의 우리 어뢰정은 어뢰를 모다 발사하였고 23, 24호 정도 전투에서 떨어져 인제는 두발의 어뢰를 가지고 있는 22호정 한정만이 적함을 공격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마지막 어뢰가 남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 이기자!》.

나는 22호정 대원들에게 웨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은 포격 소리 요란한 속에서 그들에게 들렸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의 동작을 보고 그들은 나의 말을 알아 들었을 뿐이였습니다.

리 완근 정장은 곧 두번째 순양함 (이것은 경 순양함)에 공격을 개시하였으나 인젠 22호정도 적탄에 맞아 조준경과 탐조

등이 마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훈련에서 쌓은 익숙한 솜씨로 목측으로 사격을 지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두발의 어뢰는 또 다시 적 경순양함에 맞았습니다.

바다 우에서 우리들의 승리의 함성이 올랐습니다. 이 순간의 기쁨, 이것은 말로서는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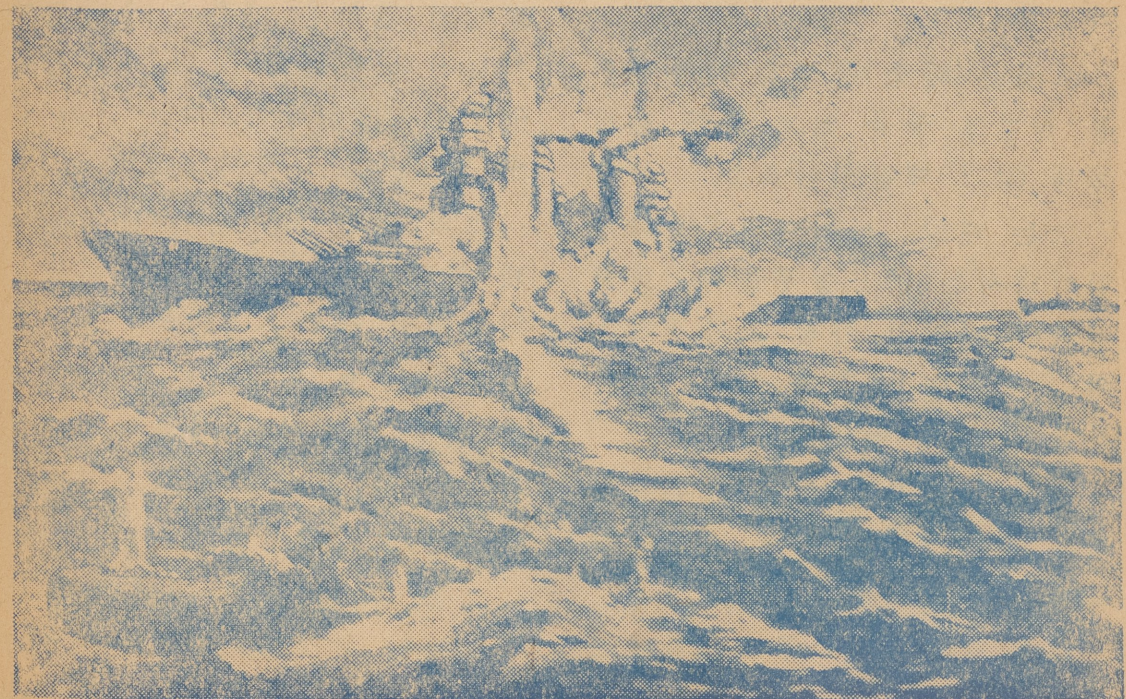
《최고 사령관 동지, 우리들은 당신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다만 나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 한마디의 말이 튕기여 나왔을 뿐이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계 해전 력사에 아직 있어 본 일이 드문 이러한 빛나는 승리를 거둔 것은 오로지 당과 수령이 우리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용감하고 충직한 아들로 키워 주었고 항상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였습니다.

해안에 나와 우리들은 다시 바다 우에 눈을 돌리였습니다. 바로 전까지 검은 그림자를 도사리고 있던 적 순양함 한척은 자취 없이 물 속에 사라지고 물 우에는 다만 기름들이 떠돌고 있을 뿐이였습니다. 격파된 나머지 순양함과 구축함은 어데로인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눈부신 아침 해는 금빛 나래를 펼치며 마치 영웅 나라의 용감한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듯 조국의 바다 우에 떠 올랐습니다.

훌륭한 소년단원의 이야기

언제나 최우등의 영예를

우리 학교 대 소년단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김 혜숙 동무는 훌륭한 소년단원이랍니다.

혜숙 동무는 5년 동안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로 다니였고 1학년에서 부터 지금까지 계속 최우등의 영예를 떨쳐 왔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영예를 떨치게 되였을가요?

그것은 혜숙 동무가 하루하루를 참말로 규률 있고 보람 있게 보내 왔기 때문이지요.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일찌기 일어나서는 반 동무들과 함께 앞뜰에 나가서 아침 조기 체조와 재미나는 유희를 하며 몸을 튼튼히 다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튼튼한 몸으로 하루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였지요.

혜숙 동무의 하루 생활에는 언제나 학교에서 배운 학과를 복습하지 않고 지나 가는 일이 없었답니다. 그는 복습할 때마다 짧은 시간내에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알기 위하여 힘쓰지요.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들이 놀 때면 함께 노는 그가 어떻게 하여 공부를 잘 할가 하고 이상하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에 학교로 떠나기 전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들이 이러저럭 헛되이 보내는 시간을 귀중히 잘 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의 학습장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리되고 있지요. 우리들은 학교에서 돌아온 혜숙 동무가 자기 손으로 직접 학교에서 배운 것을 실험하며 때로는 동무들 앞에서 실험해 보이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그는 4학년 때인 지난해 봄과 여름에만 하여도 가재와 붕어, 개구리들을 비롯한 10여종이나 되는 동물들의 해부 실험을 하였고 민들레와 할미꽃 등 이른 봄에 꽃피는 식물들을 비롯하여 80여종의 식물들을 관찰하고 훌륭한 표본들을 만들었지요.

혜숙 동무가 만든 이 표본들은 우리들의 학습에 커다란 도움으로 되였답니다.

이렇게 하루 생활을 끝내면 혜숙 동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의 하루 생활을 일기장에 반드시 적어 두군 한답니다.

또한 그는 짬만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의 일'손을 도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독서를 하고 있답니다.

이와 같이 독서를 훌륭하게 하는 것도 그의 학습을 도와 주었으며 그를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키워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모든 소년단원들은 이러한 혜숙 동무의 모범을 본받고 있습니다.

평북 의주 제2 인민 학교
리 명 자

동요

팽이

통천군 대곡 인민 학교 마 운 룡

반 동무 모여서 팽이 돌려요.
누가 오래 돌리나 내기하면서
모두모두 재간있게 팽팽 돌려요.

윙윙 소리내며 쉬지 않고 도는 팽이
공장 형님 돌리는 기계소리 같애서
더욱더 신이 나서 오래 오래 돌려요.

오늘은 이렇게 작은팽이 돌려도
형님만큼 크며는 공장기계 돌릴래요.
모범 로동자 형님처럼 멋지게 돌릴래요.

우리 학교에 온 편지

우리 학교 대 위원회는 며칠 전에 광덕 인민 학교 대 위원회로부터 한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 학교 대의 어떤 소년단원들이 내'물에 돌다리를 놓아 광덕 인민 학교 대 제2 분단에 있는 김 익자 동무네 할머니를 무사히 건느게 하였고 집까지 들어다 주었다는 기특한 행동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과 자기 학교 대 소년단원들도 이러한 기특한 행동을 본받기에 힘쓰고 있다는 내용이 씌여져 있었습니다.

《기특한 일을 한 동무는 누구일가?》하며 우리들은 편지를 받고 무척 기뻐했지요.

그후 대 위원회에서는 그 사실을 곧 알게 되였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바람이 불고 날씨가 몹시 찬 날이였습니다. 우리 학교 대 제2 분단 위원장 윤 종경 동무와 윤 명건, 윤 용건 동무들이 학교를 필하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내'물'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할머니가 함지에 무엇을 가득 이고 머뭇머뭇하며 내'물을 건느지 못해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그 짐을 받아 건너 놓은 다음 발을 벗고 물에 들어서 돌다리가 놓지 않게 고쳐 놓고는 할머니를 건느게 하여 주었던 것이였지요.

할머니는 그들의 기특한 행동에 대하여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광덕 인민 학교 대 김 익자 동무의 할머니였지요.

대 위원회에서는 그들의 기특한 행동에 대하여 벽보에 소개하였고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그들의 모범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남 인흥군 룡산 인민 학교
대위원 김 영 희

—사랑하는 우리 고향—

영웅의 봉우리 우에서

…강원도 고성군 제3 중학교 (인민반) 대 제1분단…
한 명 조

아름다운 해금강을 아래로 굽어보며 솟아 있는 351고지— 이 고지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용감한 우리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싸워 승리한 영웅의 봉우리입니다.

2•8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분단에서는 우리 고향의 자랑인 이 351 고지를 답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하여 우리들은 겨울 방학 동안에 351고지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들을 읽고 읽은 책 이야기 모임을 가졌으며 영웅들의 사진 스크랩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드릴 편지도 썼고 연예도 준비하였지요.

이 답사에는 351고지 전투에 참가하신 인민 군대 한 석호 아저씨와 박 수창 선생님을 모시기로 의논되였습니다.

* *

우리들은 씩씩하게 노래를 부르며 인민 군대 아저씨들이 싸워 승리한 영광스러운 자취를 더듬으면서 351고지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점점 351고지가 가까와지자 우리들의 눈 앞에는 원쑤놈들의 포탄과 함포로 하여 여기 저기에 남아 있는 전투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산림이 빽빽하고 숲이 우거져 대낮에도 범이 우르렁거렸다는 옛이야기가 있는 351 고지는 지금은 나무 한그루 없는 발가숭

이 고지로 되여 있었습니다.

고지 밑에 이르렀을 때 한 석호 아저씨는 시꺼멓게 불에 타 부서진 바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동무들! 이 바위가 처음엔 얼마나 컸을가요?》. 우리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바위 부스러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지요.

《서너 아름은 됐겠습니다》.

한 석호 아저씨는 웃으면서 《아닙니다. 집채 같은 바위였습니다. 적의 포탄은 이 바위를 재로 만들어 날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하고 말했습니다.

이 한가지 실례로도 351고지 전투가 얼마나 가렬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바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또 파편 묻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눈앞에 이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낸 수 많은 영웅 아저씨들의 영용한 모습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351고지를 남쪽으로 바라보며 마즌편 봉우리에 오른 우리들은 일제히 함성을 올렸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는 아름다운 비로봉과 해금강이 그림처럼 펼쳐졌고 동해 바다가 해'빛에 반짝이며 푸른 비단을 깐듯이 나타났습니다.

《참 우리 조국은 아름답기도 하지요. 우리 전사들은 바로 이 아름다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용감하게 싸웠습

니다》.

한 석호 아저씨는 351고지 중턱에 지금도 남아 있는 두개의 화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화점이 김 인택, 김 룡택 형님들이 자기의 몸으로 막아 짓부신 원쑤놈들의 증오스러운 화점이였습니다.

그리고 리 정수 형님은 저 화점 앞을 지나 공화국 기'발을 휘날리며 고지로 줄달음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의 귀'가에는 김 인택, 김 룡택 형님들이 부르짖던 그때의 목소리가 들려 오는듯 하였습니다.

김 인택 형님은 화구를 막으면서

—만약 내 한몸으로 저놈의 화구를 막는다면 전우들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아군의 승리를 보장할 것이 아닌가!—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이여 앞으로!》하고 웨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김 룡택 형님은 또 이렇게 웨쳤습니다.

—민청 회의에서 나는 로동당원들처럼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지지 않았던가!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는 것, 이것은 얼마나 보람 있고 슬기로운 일인가!—

한 석호 아저씨로부터 351고지의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은 다음 우리들은 또 이러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놈들의 폭격이 심한 가운데서 보름 동안이나 탄환과 식량을 어떻게 날랐어요?》.

《참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여러날 계속되는 장마로 저 남강을 건널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저씨는 계속해서 《마을 인민들과 그리고 소년단원들까지도 우리를 도와 용감히 싸웠지요》하

꼬 이야기했습니다.

한번은 70넘은 할아버지가 쌀 한짝을 지고 고지 밑에 찾아 오셨답니다.

《작은 것이나마 보태여 잡수》하면서 꼭 싸워 이겨 달라고 부탁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쟁쟁히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그때 소년단원들이였던 엄 인용, 리 운규, 리 영래, 엄 상숙 형님 누나들이 탄환과 식량을 나르던 이야기는 박 창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놈들의 폭격과 함포가 심한 때에도 우리 학생들은 학습을 계속하면서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도와 드렸지요.

어느날 방과 후 엄 인용 동무는《선생님! 우리들도 로동당원들과 민청원 형님들의 뒤를 따라 고지에 탄환을 운반하게 해 주십시요》하고 제의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 제의를 끝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그때 우리 학교에서는 소년단원들의 운반 부대를 조직하였지요.

달도 없는 밤에 탄환과 식량을 져 나르는 소년단원들의 주위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윙윙 날아 지나 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도 겁내지 않고 하루 밤에 두차례씩 포탄과 식량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은 부상병들을 간호해 드리며 노래와 춤으로 위안해 드렸지요—

선생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또 한 석호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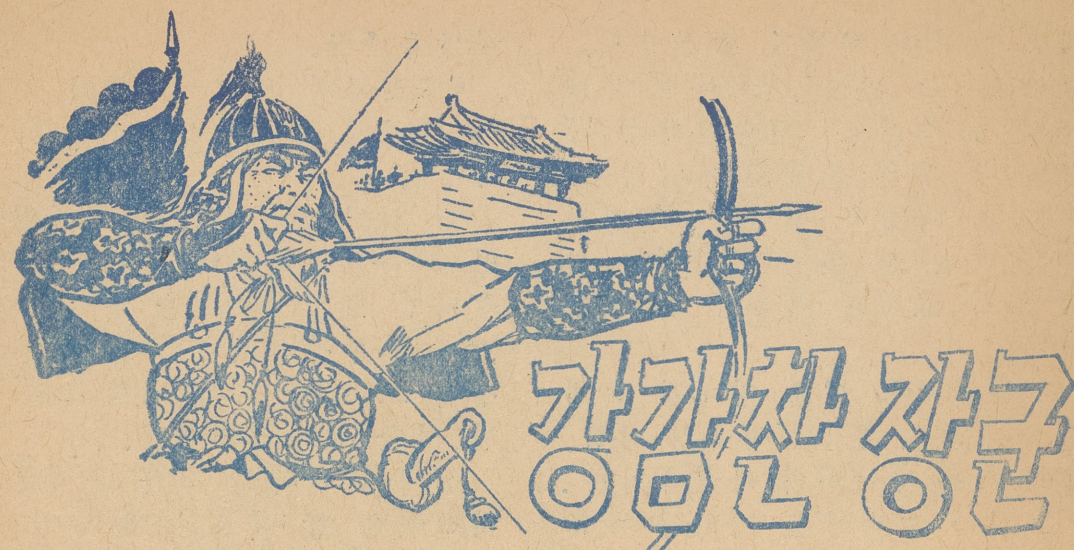
《바로 후방의 인민들과 또 소년단원들까지 그렇게 도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민 군대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끝난 다음 우리들은 인민 군대 아저씨들에게 우리들의 연예를 보여 드렸지요.

그리고 꼬마 화가들인 권 영부와 장 옥분 동무는 351고지를 스켓취하였고 함 신자 동무는 시를 썼습니다.

이날 우리들은 영웅의 봉우리우에서 그림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해금강과 비로봉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조국을 우렁차게 노래 불렀습니다.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 금의 자원도 가득한
삼천리 아름다운 내조국
………

우리들의 씩씩한 노래 소리는 영웅의 봉우리마다에 메아리치며 울려 갔습니다.

강감찬 장군

리 갑기

우리 나라의 위대한 애국자의 한 분이신 강 감찬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1008년 전인 948년에 경기도 시흥군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강 감찬 장군의 아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나서 자란 분으로 고려의 통일을 위해 몸바쳐 공로를 세운 분이였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모신 강 감찬 장군은 아버지의 애국심을 본받아 어렸을 때부터 앞날의 위대한 애국 영웅으로 자라났습니다.

강 감찬 장군은 어려서부터 글 읽기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날마다 일과를 정하여 놓고 어김 없이 공부하였으며 글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군사 기술도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사 기술도 연구하게 된 것은 그때 벌써 장군이 나라 형편을 살펴 보고 결심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고려가 통일된지 얼마 안되여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녀진이라는 종족과 거란이라는 종족이 항상 고려를 엿보고 있어서 언제 쳐들어 올지 모를 형편이였습니다.

그리하여 강 감찬 장군은 많은 글을 읽고 많은 지식을 넓힌 다음에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몸을 바쳐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으며 또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직접 나라 일에 참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꾸준히 글을 배워 온 강 감찬 장군은 36세 때에 과거에 합격하여 그 이름을 널리 떨치였습니다.

이리하여 장군은 나라 일에 직접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1010년이였습니다.

거란 왕이 40만 대군을 거느

리고 고려에 쳐들어 왔습니다.

고려에서는 마침 강조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현종이라는 17세의 새 왕을 올렸을 때입니다. 993년에 쳐들어 왔다가 쫓기여 간 거란은 그 틈을 타서 17년만에 다시 고려에 쳐들어 온 것입니다.

고려에서는 이때 강조가 군대를 거느리고 통수 (지금의 선천)에서 적을 맞이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고려군은 거란의 대군에게 공격을 받아 패전을 하고 강조는 그곳에서 거란군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란의 침략군은 다시 개성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때였습니다.

많은 대신들은 이제 항복하는 길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 감찬 장군과 양 규 장군은 단연코 일어나 반대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목숨이 있거늘 적에게 항복이란 당한 말인가!》.

강 감찬 장군은 고려 사람들이 모두 한덩어리가 되여서 싸운다면 반드시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동안 잠시 남쪽으로 피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적에게 항복할 것을 생각하던 대신들은 강 감찬 장군의 이 불타는 애국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거란 침략군이 개성에 쳐들어 왔을 때입니다.

강 감찬 장군은 양 규 장군에게 남은 군대를 모으게 하고 한편 후방의 인민들과 북쪽에서 밀려 오는 피난민을 모아 힘을 합하여 적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적을 막지 못한다면 고려는 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서 천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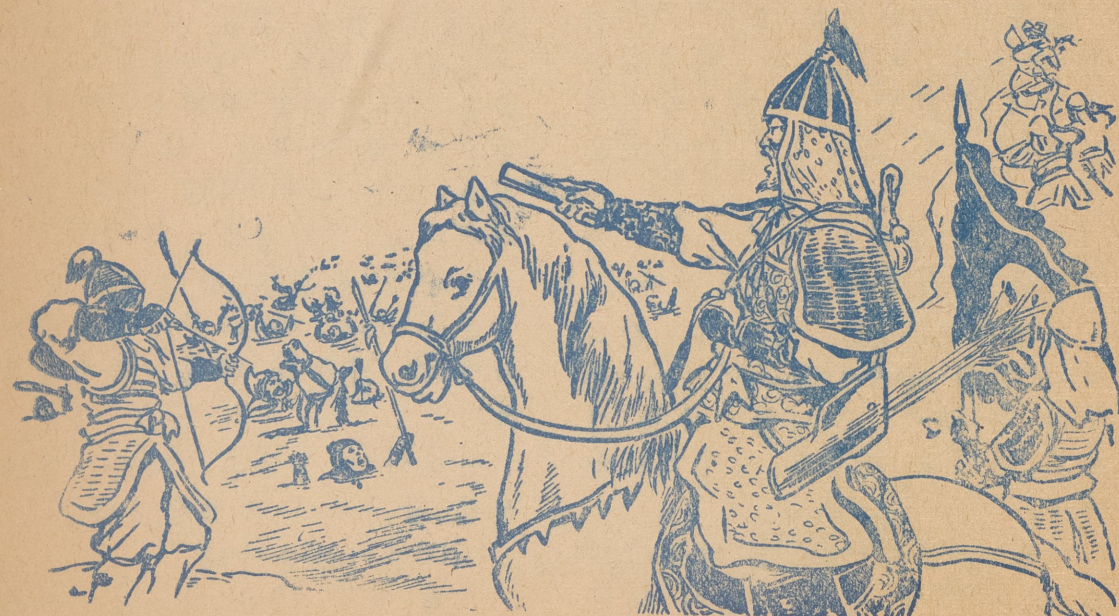
수모를 받는 것은 이곳에서 적과 싸워서 깨끗이 죽는 것만 못할 것이다》.

강 감찬 장군은 군대와 인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려 인민들은 나라가 망한 백성으로서 남의 수모를 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강 감찬 장군의 지휘 밑에 고려 군대와 인민들은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거란의 침략군을 나라 밖으로 물리치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9년 후인 1019년에 다시 수십만의 거란 침략군이 고려에 쳐들어 왔습니다.

강 감찬 장군은 다시 거란 침략군이 쳐들어 올 것을 내다 보고 조국을 튼튼히 지키기 위한 준비를 미리부터 갖추었습니다.

이때의 전투 이야기 가운데는 강 감찬 장군이 적들이 건너올 큰 강에서 소 껍질 수천장으로 강물을 막고 있다가 적들이 건널때 갑자기 소 껍질 보'둑을 풀어 적을 물 속에 쳐 넣고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 감찬 장군이 얼마나 훌륭하게 전투를 마련했는가를 잘 말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고려 땅에 들어서는 걸음마다 용감한 고려 군대와 인민들의 공격에 부닥치게 된 적들은 평양에서 고려 군대를 지휘하고 계시는 강 감찬 장군의 눈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개성으로 쳐들어가 빨리 승리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강 감찬 장군이 이것을 모를리 없었습니다. 강 감찬 장군은 미리 그것을 알고 고려 군대의 일부로 개성을 지키게 하고 또 한 부대는 적군의 뒤를 추격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강 감찬 장군은 친히 그곳에서 다시 몰려 도망쳐 나오는 적을 기다려서 이것을 또 짓부셔 놓을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적 후방의 고려 인민들과 군대들도 한덩어리가 되여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리하여 거란군은 고려 땅 깊숙히 들어 왔으나 식량도 얻

을 수 없어 허덕이게 되였으며 끝내 도망치게 되였습니다.

강 감찬 장군의 작전 계획은 어김 없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강 감찬 장군은 개성 쪽에서 쫓겨 나온 적군에게 숨 돌릴 사이를 주지 않고 개천, 녕변, 구성 등 길목마다에서 맞받아 공격했습니다.

이리하여 살아 본국까지 돌아간 적군은 불과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거란 침략군은 다시는 고려에 쳐들어 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리를 거두고 강 감찬 장군은 돌아왔습니다. 인민들은 강 감찬 장군을 환영하였습니다.

장군이 돌아오시는 길'가마다에서 인민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때는 강 감찬 장군이 70이 넘었을 때입니다.

84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강 감찬 장군은 일생을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강 감찬 장군을 위대한 애국자로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원쑤들에 대하여 항상 경각심을 높이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항상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앞잡이 간첩들을 시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힘을 좀먹으려하며 우리 인민들이 복구 건설한 공장, 광산, 철도와 그리고 기관, 학교, 병원들을 파괴하려 날뛰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그러나 원쑤놈들이 제아무리 별별 수단을 써도 우리 인민의 뭉친 힘을 좀먹을 수 없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방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항상 당과 정부와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철석같이 뭉쳐 있기 때문이며 언제 어디서나 원쑤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옛 격언에 《자루 속에 든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과 같이 적 간첩들은 경각심 높은 우리 인민과 소년들의 눈 앞에 자기의 더러운 그림자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해 12월 15일에는 로동당원들과 우리 인민의 날카로운 눈초리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낸 미제 고용 간첩 두목이며 조국의 반역자인 박 헌영에게 우리 인민의 심판은 내려졌습니다.

박 헌영은 벌써 오래 전부터 조국과 인민이 용서할 수 없는 미제의 앞잡이 간첩질을 하여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인 1919년부터 박 헌영은 벌써 기독교 선교사로 서울에 와 있은 미국 탐정인 언더우드라는 놈과 가깝게 지내면서 미국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925년 11월에 일제 경찰에 붙잡히자 놈들에게 굽히여 조선 공산당과 공청의 비밀을 불고 그 지도 간부들을 고아 바쳐 놈들에게 붙잡히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조선 인민의 원쑤로서 조선의 혁명 운동을 반대하는 일을 직접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팔아 먹는 길에 들어선 박 헌영은 1939년 10월에는 미국 탐정 언더우드를 다시 만나 그가 청하는 대로 미제 간첩 노릇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 헌영은 이 약속을 충실히 지켜 나가기 위하여 겉으로는 《애국자》로 보이면서 실속으로는 혁명을 반대하며 미제의 조선 침략에 이바지하는 온갖 죄행을 계

속해 왔습니다.

8.15 해방후 곧 《애국자》로 가장하고 남 조선에서 공산당 비서의 자리를 차지한 다음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에 오르자 그때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이였던 하 지와 만나 그에게 또다시 미제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리하여 1946년 2월에 그는 당의 비밀을 하 지에게 제공하였으며 3월에는 또 그의 지령대로 미제의 간첩들인 리 승엽 조 일명 등을 당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우고 그들의 간첩 행동을 지도하며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박 헌영은 1946년 3월부터 1947년 9월까지의 사이에 리 승엽과 조 일명으로 하여금 여섯번이나 당의 활동에 관한 중요한 비밀 내용을 미군 정탐 기관에 넘겨 주게 하였습니다.

박 헌영은 다시 1946년 9월에는 북조선에 들어와 당과 인민 정권의 중요한 자리에 앉기 위하여 미 군정과 짜고 자기에 대한 거짓 《체포령》을 내리게 한 다음 이 기회를 타서 북조선으로 들어 온 후 그는 미제 간첩인 리 강국의 간첩 활동을 보장해 주면서 그로 하여금 1947년 5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기간에 다섯번에 결쳐 공화국 북반부의 중요한 기밀을 미군 첩보 기관에 넘기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리 승엽 등과 함께 자기들의 반역적 행동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당의 충직한 일'군들과 그리고 민주 인사들과 애국자들을 마구 학살하였습니다.

박 헌영은,조국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 인민이 한결 같이 일어나 싸우고 있은 어려운 전쟁 시기에 우리의 당과 정부를 전복할 목적 밑에 무장 폭동을 계획하고 그 준비를 위해 날뛰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남조선에서 들어 온 일부 불순한 당원들을 속이여 그들을 당과 정부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싸고 돌면서 자기 주위에 묶어 세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림 화를 비롯한 반동 작가들인 반 혁명 분자들에게 지시를 주어 반동적인 사상을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 헌영과 그의 악당들은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당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였고 우리 인민을 미제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방해하여 왔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이 악당들을 적발하여 처단한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치여 원쑤놈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입시다.

—로동당원 안 영애 누나의 이야기—

한 창 수

1211고지에서 가까운 낮으막한 산중턱에는 정성스레 다져진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앞에는 《로동당의 충직한 딸 안 영애 동무의 묘》라고 씌여진 표말이 서 있습니다.

안 영애 누나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자기의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로동당원의 영예와 자랑을 간직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싸워 이긴 수 많은 우리의 형님 누나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 *

영웅의 봉우리인 1211고지에서 한창 싸움이 벌어지고 있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이날도 젊은 로동당원인 간호원 안 영애 누나는 환자들의 곁에서 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바로 환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뒤'산에 올라 나리꽃을 한아름 꺾어 가지고 병실로 들어 서려고 하였을 때였습니다.

요란한 폭음 소리와 함께 증오스런 미국 구라망 전투기가 날아 왔습니다. 적기들은 검은 나래를 솟구며 한바퀴 돌더니 바로 군의소 중환자 병실이 있는 곳에 폭격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밉살스러운 날강도들은 폭탄과 그리고 소이탄까지 마구 퍼부었습니다.

사방은 잠간 동안에 불바다가 되고 불'길은 누나가 맡아 보는 중환자 병실에까지 미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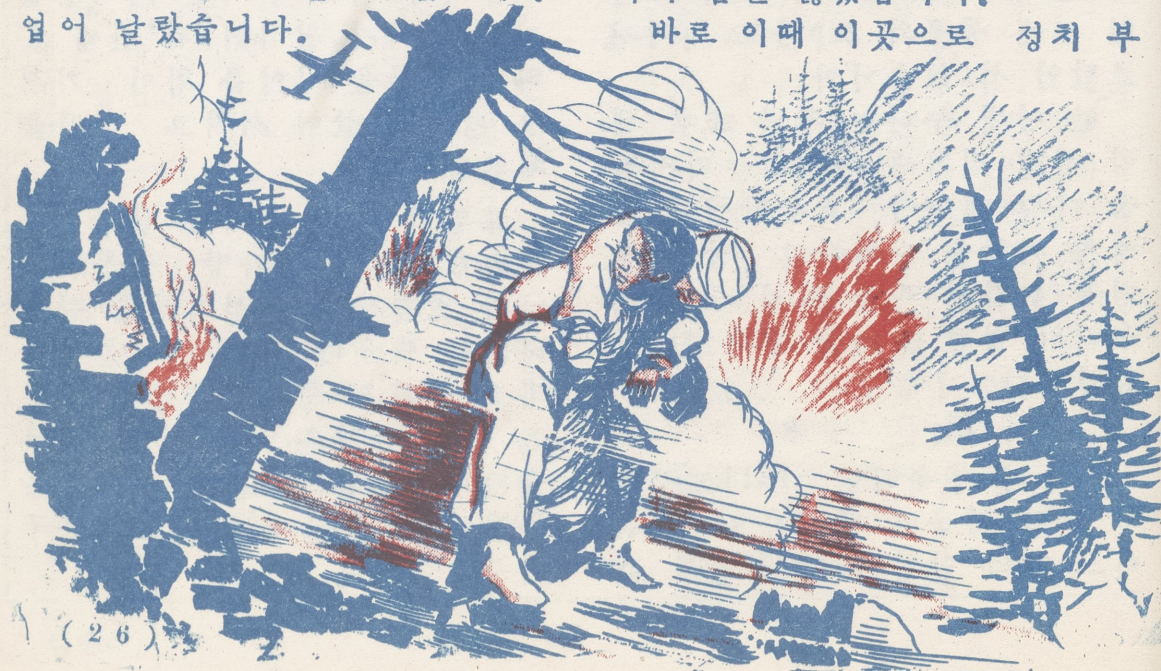
병실에 폭탄을 퍼부은 적기를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보던 안영애 누나는 손에 쥐였던 나리꽃을 그 자리에 던지고 불'길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환자들을 구해내야지, 언제나 환자들의 목숨을 구해 주는 것—이것이 당이 나에게 준 임무가 아니냐!》.

누나는 바로 이렇게 결심을 한 것이였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나는 자기 등에 환자들을 업고 뒤'산 대피호에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불'길은 주위를 삼킬 듯 더욱 세차게 뻗어 올랐고 밉살스런 적기는 또 마구 기총 사격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조금도 굴함이 없이 30여명의 환자들을 계속 업어 날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자 한명이 남았는데 불'길은 앞길을 가로 막았고 몸도 지칠대로 지치여 다리가 허청해졌습니다.

《귀중한 목숨을 불'길 속에 남겨 둘 수가 있는가, 안될 일이다. 그를 살려 내야 한다》.

누나는 다시 비칭거리며 불'길 속을 뚫고 병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환자를 또 업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불'길 속을 빠져 나왔을 때였습니다. 낮게 떠 돌던 적기가 누나를 보았는지 내려오며 불'길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누나는 업었던 환자를 내려놓고 그를 자기의 몸으로 가리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언제나 자기의 몸보다 환자의 몸을 더 귀중히 여겼고 또 이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첫째가는 임무라는 것을 명심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탄은 누나의 몸을 뚫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곳으로 정치 부

소장이 달려 왔습니다.

숨이 져 가면서도 환자의 손목을 꽉 쥐고 있던 누나는 자기 앞에 다가선 정치 부소장을 알아 보자 간신히 속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간수해 두었던 돈과 당증을 꺼내였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는 마지막 말을 하였습니다.

《정치 부소장 동무, 로동당이 나를 길러 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싸우다 죽는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돈으로 나의 마지막 당비를 물어 주십시요. 그리고 나의 이 당증을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 보내 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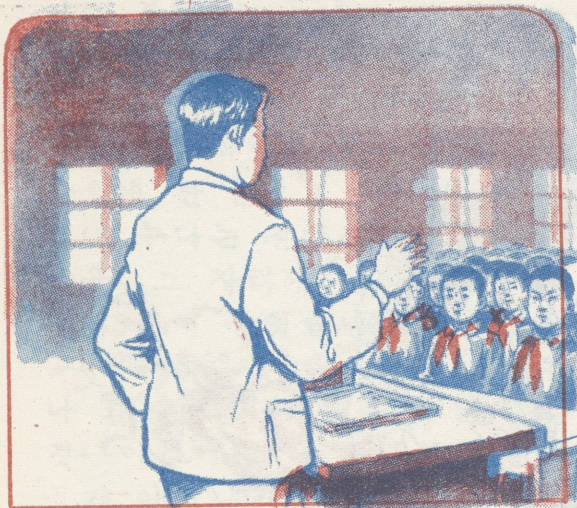
이마에 흐르는 피로 하여 누나는 눈을 뜰 수 없었으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교양을 주던 두 민청원 동무들을 꼭 당에 입당하게 하여 주십시요.

나는 조국 통일의 날까지 싸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동무들! 끝까지 잘 싸워 주십시요!》.

그의 이 마지막 말은 그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얼마나 충직하며 당과 수령이 자기에게 맡겨준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 낸 것을 얼마나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 줍니다.

자기의 목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을 위하여 용감히 싸운 누나의 고귀한 정신은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간첩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인민 학교에서

지난해 5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소년단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의 적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입시다. 적의 간첩들은 우리들의 가까이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놈들은 교묘한 수단으로 우리 후방에 들어와 우리들을 해치려고 한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이 말씀을 들은 후 어느 날 아침 학교로 가는 언덕길에서였습니다. 박 은구, 리 한국 두 동무들이 걸어가는 앞으로 두명의 인민군 전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명 모두 손과 혹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부상병들이였습니다.

《부상병 아저씨들을 오래'만에 만나는구나》.

박 은구 동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 *

소년단원들 앞까지 걸어 온 부상병 아저씨들은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여기 군의소가 어딘지 모르니?》.

이 물음에 둘이다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군의소를 아는 동무들은 한 동무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두 부상병의 행동과 모습이 어쩐지 이상해만 보였습니다.

이때 5학년생 박 은구 동무는 며칠 전에 하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박 은구 동무는 얼핏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왜 부상을 입었어요?》.

《응 고지에서 지뢰를 묻다가 그랬단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 *

한 부상병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낼 때 무엇인가 작은 종이 조박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리 한국 동무는 슬그머니 롱구화 끈을 매는척하고 그것을 손으로 쥐였습니다.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이 길로 이웃 초급 중학생인 신 춘택 동무가 걸어 왔습니다.

《무얼 그러니?》.

《이 아저씨들을 군의소까지 데려다 주려고 그래》.

그러나 부상병들 옆에 선 리 한국 동무만은 그에게 이상한 눈짓을 했습니다. 눈짓을 알아 차린 신 춘택 동무는 부상병들 옆을 지나, 가던 길을 또 걸었습니다.

이때 리 한국 동무는 손에 쥐였던 종이 조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 *

한참 학교 길을 걸어 가던 신 춘택 동무는 종이 조박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 없이 영어로 쓴 암호 글자였습니다.

《옳지, 경무초소 아저씨들에게 알려야지》. 이렇게 결심한 그는 곧 경무초소를 향하여 달리였습니다.

* *

《아저씨들, 그럼 군의소로 갑시다》.

박 은구 동무는 아저씨들을 부축해 주면서 걷기 시작했고 리 한국 동무는 고추 학교로 와서 교장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장 선생님도 경

무초소와 내무서에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 ※

박 은구 동무가 아저씨를 데리고 온 것은 경무초소 앞이였습니다.

이때 경무원 아저씨는 그들이 바로 앞까지 닿자, 별안간

《손들엇!》하고 대뜸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두 놈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경무원 아저씨들은 놈들이 메고 있는 무기들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놈들은 틀림 없는 적 간첩놈들이였습니다. 인차 간첩놈들을 자동차에 실어 군내무서로 넘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였습니다. 군내무서에 적 간첩을 잡은 소년단원 박 은구, 리 한국 동무들은 불리여 갔습니다.

내무서장 아저씨는 기뻐하면서

《동무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하였소. 간첩놈들은 아주 흉칙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차이요》하고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주었습니다.

조용하여라!

상학종이 울리였는데 교실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왁짝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떠들어서 종 소리도 듣지 못했지요.

그런데 교실 창'가에 앉은 한 아이가 선생님이 걸어 오시는 것을 보자, 《쉬!》. 《조용하여라!》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또 곁에 아이들이 제가끔 《조용하여라!》하고 소리 쳤습니다.

인젠 온 교실 안에서 저마다 또 한마디씩 이야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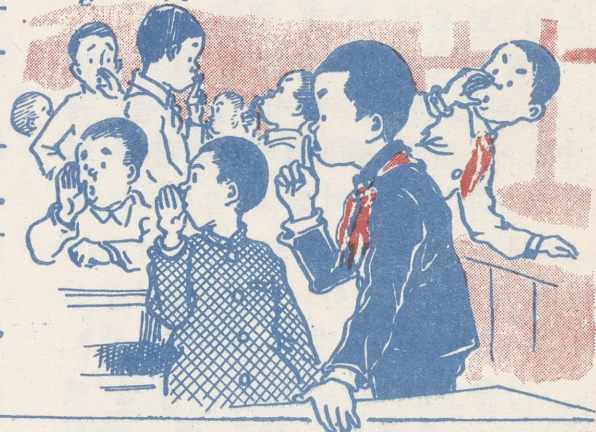
《너희들은 왜 조용하지들 못하니!》.

《너희들이 떠드니까 말이지》.

나종에는 모든 아이들이 일제히 《조용하여라!》하고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는 아마 온 학교 안에 울리여 갔을 것입니다.

× ×

이런 일은 규률과 질서가 없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시 간

웨 · 오쎄예와

어린 두 소년이 큰 거리에 걸려 있는 시계 아래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난 숙제 답을 아직 못냈어, 까다롭게 괄호가 있어서》.

유라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나두 채 풀지 못했지, 수'자가 어떻게나 많은지》.

오레끄가 또 말했습니다.

《아직 일찍한데 뭐 함께 풀어 보자꾸나?》.

거리에 걸려 있는 둥근 시계는 바로 한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반시간이나 있어》.

유라가 또 말했습니다.

《반시간이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우리 아버진 전쟁 때 반시간 동안에 중요한 지점 두 개나 점령했대!》.

《우리 아저씬 선장인데 말이야, 배가 마사졌을 때 20분 동안에 배에 앉았던 사람들을 모조리 뽀트에 구해 냈대!》.

《뭘 20분까지 걸릴게 있니?》.

유라는 마치 일이 있으면 능난하게 척척 해 제낄 것처럼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때로는 10분, 또 심지어는 5분이라도 큰거야, 그러니 1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해》.

《나두 건 알구 있어, 어떤 때엔… 그 운동회 같은 때 말이야…》.

두 소년은 구수한 일들을 많이 끄집어 내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알만 해…》.

오레끄는 문뜩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계는 벌써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은

《에그머니나. 어떻게 해!》하고 소리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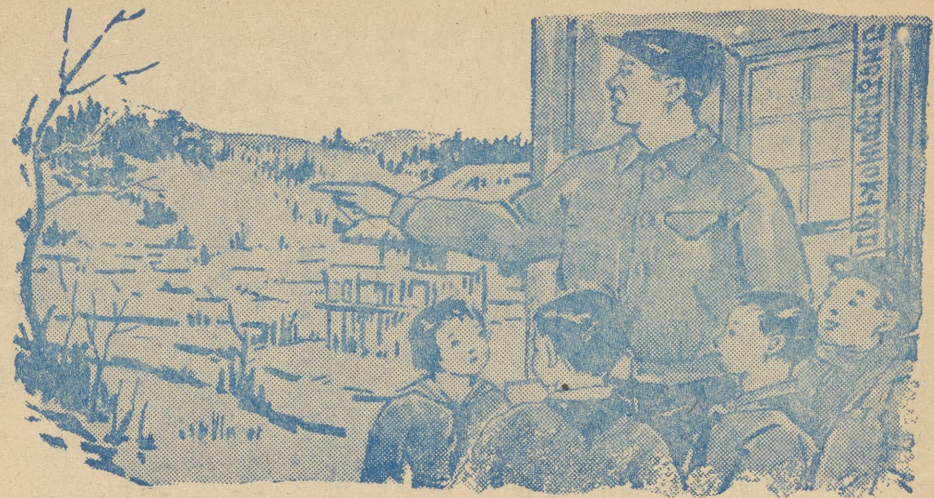
《빨리 달려 가자!》.

유라가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나면 틀림 없이 지각이야!》.

《그런데 숙젠 어떻게 할가?》.

오레끄는 급해서 말했습니다.

막 달음질 치고 있는 유라는 오레끄에게 손을 저으며 빨리 따라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을의 협동 조합을 찾아

지난 어느날 우리 학교 대소년단원들은 강 병숙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회를 찾아 갔습니다.

우리들을 반겨 맞아 주신 관리 위원장 강 병진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협동 조합이 오늘까지 걸어온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주시였지요.

지난해 봄에 조직된 이 조합에는 36집이 들어 있습니다.

조합이 조직된 첫 한 해에 벌써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은 훌륭한 로력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지요.

《이른 봄부터 우리 협동 조합원들은 마을의 앞장에 나서서 봄갈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느 때보다 일찌기 봄갈이를 끝낸 우리 조합에서는 박 창욱 로인을 비롯한 늙은이들로서 조합원들의 주택과 온돌을 수리하고 많은 벽토와 구들재를 모았으며 한편 젊은 로력으로서는 여러 정보의 묵은 땅을 일쿠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조합내 민청원들이 풀베기와 객토 작업의 앞장에 나서 많은 자급 비료들도 마련하게 되였지요.

이렇게 조합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일함으로써 힘든 일도 쉽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의 농사에선 개인 농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을 거두어 분배하였답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말씀에 뒤이어 탁 영숙 어머니가 조합에서 일하게 된 기쁨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였습니다.

어머니는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는 후방 가족으로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일하게 된 어머니는 조합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마음껏 일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살림을 누릴 수 있게 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협동 조합이 정말 우리 마을을 더 행복한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새해의 농사 준비를 위하여 벌써 새해에 사용할 자급 비료를 60%나 마련해 놓았고 객토도 80반보에 깔 수 있게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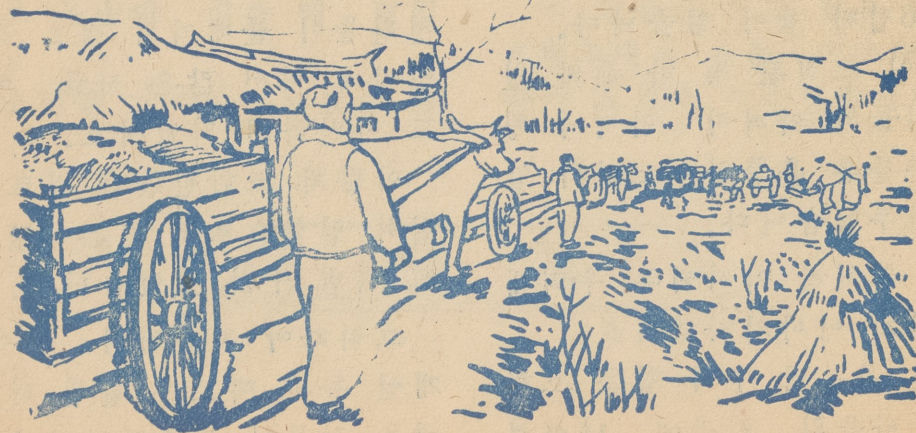
《올해에는 협동 조합들에 많은 화학 비료가 나오게 된답니다. 이제 우리 협동 조합에서도 이 화학 비료를 더 사용하게 되면 새해에는 지난 해보다 또 더 많은 쌀을 거둘 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들은 협동 조합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또 한해를 보람 있게 보내며 열심히 공부할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학습의 여가를 타서 협동 조합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더 많이 도와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평북 곽산군 제4 중학교 대(인민반)

김 영 자

소설

뙤를 판 소년

박 덕 수

영수는 무덤 같이 늘어선 움집 사이로 힘없이 걸어 갔습니다.

남산 머리 우로 얼굴을 내민 초생달이 불빛이 드문 서울의 밤거리를 쓸쓸하게 내려 비쳤습니다.

마침 밤이였으니 말이지 그렇지 않았드라면 길 가는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영수를 쳐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럴 밖에 없는 것이 나어린 소년이 마치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리며 걸어 가는데다가 얼굴빛까지 파랗게 질렸으니까요.

영수는 몸이 나른하고 눈 앞이 어찔 어찔한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아무 일 없이 학교에 잘 다니던 영수가 오늘 따라 웬일일가요?

영수는 어슴프레한 골목길을 따라 막끝에 있는 집에 까지 겨우 다달았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 보다 차라리 헛간이라는 편이 낫겠습니다. 엷은 널판자로 둘러 싸인 이를테면 판자집이라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닳아 빠진 가마니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는 겨우 집에 발을 들여 놓자 마자 그만 즐퍽 쓰러졌습니다.

《아이구—얘가 참 웬 일이냐》.

희미한 등잔'불 빛을 빌어서 바느질하고 계시던 어머니는 깜짝 놀래며 일'손을 놓았습니다.

《얘가 왜 이래? 얼굴이 새파랗니》.

어머니는 가슴에서 털썩 무거운 돌이 떨어졌습니다. 《영수

야! 엄마다 응 영수야》.어머니는 머리 말에 앉아 몇번이고 불러 보았으나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말할 기운조차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간신히 두 눈을 뜨고 어머니 얼굴을 알아 보았는지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헛소리를 칩니다.

《피…피…》.

영수의 파란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뭐이?》. 아버지도 펄쩍 놀래며 영수에게 다가 앉고 그의 몸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녀석아! 웬 일이냐? 응 이 녀석아》.

《피…피를 팔았어요》.

영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정신을 잃었습니다.

※ ※

바로 그날 저녁에 있은 일이였습니다.

영수가 다니는 국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수업료》《사친회비》《후원 회비》외에 저금 500환씩 가져 오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저금은 나라에서 시키는 일이다.

그러니 안내는 놈은 학교도 다닐 자격이 없단 말이다. 알겠냐?》. 미국놈과 리승만이라면 허리를 굽실거리는 교장놈은 눈을 부라리며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영수는 더럭 겁이 났습니다.

《참 이걸 어쩌면 좋을가?》.

머리'속에는 이궁리 저궁리가 스쳐 갑니다. 그러나 영수네 집은 몇백환은 커녕 단돈 한푼도 없는 가난한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분 공장의 로동자였으나 얼마 전부터 전기를 받지 못하여 공장이 멎게 되자 그와함께 일자리를 잃

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품값마저 몽땅 쓰고 말았으니 이제부터 살아갈 일이 아득하였습니다. 더구나 동회에서는 매일같이 이 세금 저 세금을 내라고 야단이지, 영수네 학교에서는 무슨 비용 무슨 료금으로 돈을 받아 오다가 요즘은 신년의 경비라 하여 《수업료》《교과서 값》《학습장 값》《학부형 회비》《기부금》《교사 수리비》《사친회비》등 명목으로 2천환이나 가져 갔습니다.

영수네 집에 돈이 있었을 까닭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의 학비를 못대면 부모의 큰 죄라고 이웃 부자'집에 가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겨우 변'돈을 내왔습니다.

영수는 이 돈을 치루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쫓겨 나지 않게 되였으니까요.

그러나 학교 안은 한편으로 쓸쓸한 기분이 돌았습니다.

영수와 기중 가까운 동무들이 돈을 내지 못하고 마침내 학교에서 쫓겨 났답니다.

영수는 친한 동무들이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는 것이 서글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구 동시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두 이러다 쫓겨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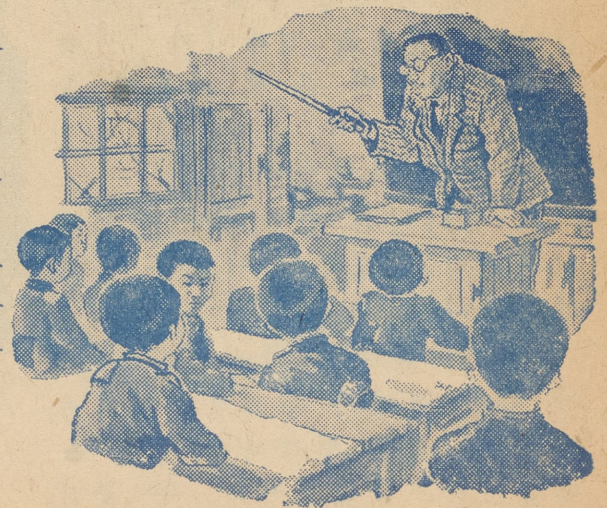
그러던 참에 이번에는 저금 5백 환을 가져오라니 참으로 이 일을 또 어쩌면 좋겠습니까?

《옷을 팔고 쌀을 팔아서라도 래일까지 내야 돼, 리승만 대통령의 분부야—》.

교장놈은 이렇게 스리소리 지르며 《원자탄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원자탄 몽둥이》는 남조선 악질 교원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나무 몽둥이)

영수는 그것이 꼭 자기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갈았습니다. 만일 돈을 내지 않으면 《원자탄 몽둥이》로 눈에서 불이 나게 매를 맞고 쫓겨날 것을 생각하니 속이 후둘후둘 떨렸습니다.

영수는 이날 수업을 마치였으나 도무지 집으로 향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미국 기관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어진 교사의 나무 판자밑에 쭈구리고 앉아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교장놈에게 사정을 말해 봤자 쓸데 없는 것이겠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 봤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숨만 쉴 것이 빤한 일이였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해는 서산으로 머리를 꺼꾸로 박고 내려 떨어집니다. 석양이 되니 장을 스쳐 불어오는 바람이 더욱 사납게 윙윙 울부짖으며 휘몰아칩니다. 속 내의도 없이 종이장 같이 엷은 넝마를 걸친 영수는 추위에 떨면서 학교 문밖으로 나섰습니다.

벌써 날이 어슬어슬해 집니다. 그러나 여게서 영수네 집까지는 머지 않으니까 큰 길을 고추 가다가 골목으로 돌아서 움집들이 많은 산기슭에 이르면 됩니다.

영수는 큰 길을 빠져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멈춧했습니다.

《애 야!》.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걸음을 멈추니까 저만침에서 몸집이 큰 웬 어른이 옵니다.

《애야! 이제가니?》.

그 사나이는 벙글벙글 웃으며 인자스럽게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그 사람을 보자 마치 벌레가 등으로 기여오르는 것 같은 징그러운 감을 느꼈습니다. 중절모자를 푹 눌러 쓴 얼굴에 허물이 있고 왼 눈이 오므라든 것이 밤거리를 싸다니는《어깨》라는 싸움패 같습니다.

《난 아저씰 몰라요》.

영수가 그대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나이는 영수의 소매를 붙잡고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애야, 놀래지 말어, 난 너를 알어,

너의 학교의 학부형이다》. 하고 그는 제법 학생의 이름까지 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데선가 보던 사람 같기도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새로 나온 책들

소년 소설

기 적 소 리

강 효 순 작

이 소설은 사진사로 가장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파괴하려던 적간첩을 소년단원들이 내무서원 아저씨들을 도와 어떻게 체포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전투 실기

잊을 수 없는 전투의 날

신 중 순
조 경 직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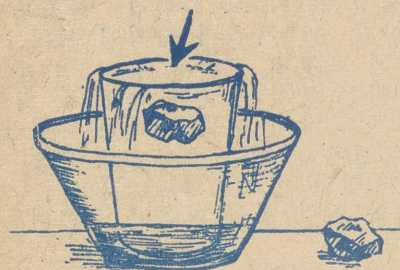
이 책은 공화국 영웅 신 중순 형님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용감히 싸워 이긴 339고지 전투에 대하여 쓴 이야기 책입니다.

우리들의 실험실

어떻게 하면 될가?

여기에 모양이 우멍 구멍하게 생긴 돌맹이가 하나 있다.

무게라면 저울에 달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알려고 하는 것은 무게가 아니라 체적이다.

모양이 바르지 않은 이 돌맹이의 체적을 어떻게 하면 재일 수 있을가요?

체적을 알아야 할 돌맹이를 가득 채워져 있는 물그릇에 넣으면 돌맹이의 체적만큼 물이 흘러 넘을 것이다. 흘러 넘은 물의 체적을 계산해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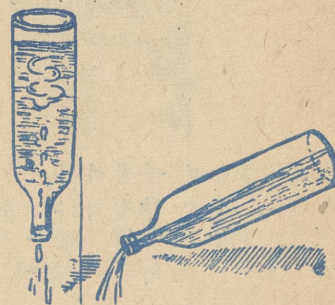
물의 체적은 비 내린 것을 재는 그릇(측우기)에 넣어 보아도 알 수 있으며 그 물의 무게를 달아서도 알 수 있다. (보통 한 그람의 물(4도)은 한 립방 cm이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빠를가?

두 소년이 병에 든 물을 빨리 쏟으려고 한다.

한 소년은 병을 곧바로 거꾸러뜨려서 물을 쏟고 있으며 다른 소년은 병을 엇비스듬히 기울여서 물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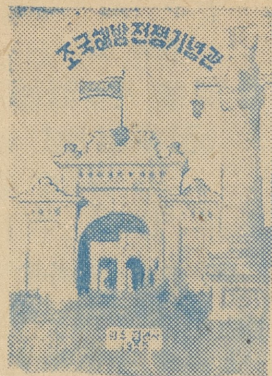
어느 쪽 병의 물이 빨리 쏟아지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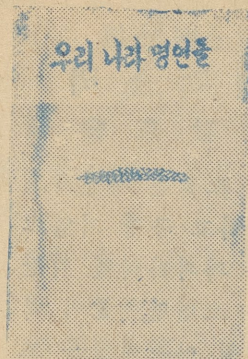
한번 실험해 보십시요!

곧바로 거꾸로 든 병의 물은 공기가 들어 갈 틈을 주지 않으므로 콸콸 막혔다가는 또 쏟아지군 한다.

새로 나온 책들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리 진 화 작

이 책은 미제 원쑤들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워 승리한 가지가지의 승리의 기록을 보여 주는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의 내용을 직접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우리나라 명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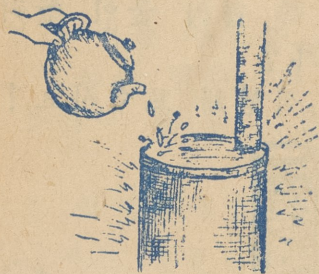
이 책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바쳐 조국에 이바지한 을지문덕, 연개 소문, 강 감찬, 양규, 리순신, 최 무선 등 장군들과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세종왕, 박 지원, 김 홍도, 김 정호 등 과학자들의 이야기 10편을 묶은 책입니다

우리들의 실험실

그러나 엇비스듬히 기울인 병에는 공기가 막힘 없이 들어가게 되므로 물도 막힘 없이 빨리 쏟아진다.

왜 방울지는가?

불로 달군 양철우에나 난로우에 물을 조금 부어보라.

물은 반듯한 바닥우에 흘러 퍼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방울지며 튕겨 오른다.

왜 그럴가요?

물은 열을 받으면 증발한다.

그런데 몹시 달군 양철이나 난로 우에 떨어진 물은 미쳐 바닥에 닿을 새 없이 높은 열을 받아 증발하기 때문에 방울져 튕겨 오르는 것이다.

물이 높은 곳으로 올라 간다

두개의 그릇을 준비하시요.

그림과 같이 낮은데 놓은 유리 그릇에는 물을 채워두며 높은 곳에 놓은 유리 그릇에는 초'불을 켜 놓고 뚜껑을 덮어 놓으시요. 그리고 가는 고무관을 두 유리 그릇에 그림처럼 꽂아 놓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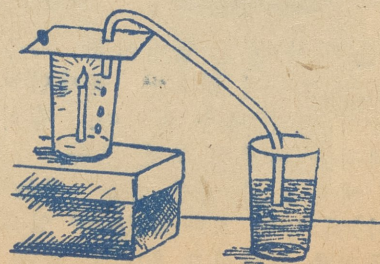
초'불이 얼마쯤 타면 낮은데 있는 물은 가는 고무관을 통하여 높은 곳에 놓인 유리 그릇에로 넘어 간다. 왜 그럴가요?

× ×

초'불이 타면 유리 그릇 속에 있던 산소는 점점 없어지고 타버린 산소보다 퍽 적은 량의 탄산가스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산소 만큼 유리 그릇속에는 공기가 줄어 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리 그릇 속에는 그만큼 빈 자리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힘으로 되는 것이다.

펌프는 이런 힘을 리용한 것이다.

동무들! 우에 14마리의 동물들을 얼핏 보면 그럴듯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제 몸뚱이에 제 대가리가 붙지 않은 괴상한 동물들입니다.

어느 몸뚱이에 어느 대가리가 붙어야 제것으로 되는 가를 10분내에 10마리 이상 찾아 보십시요.

찾아 보고 몇개나 찾았는가를 다음호에 발표하는 답과 맞추어 보십시요.

앞표지…어린 공작가들…김창규 촬영　　뒤표지…인민 군대와 소년단원들…김창규 촬영

알림. 1호 앞표지와 뒤표지 설명이 바뀌였습니다.

1956년 2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2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2호 (77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023　값 25 원　52,000부 발행